

# 전남 '아동 삶의 질' 전국 최하위

## '아동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세종시 1위, 광주는 5위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 발표...도농간 삶의 질 격차 심화

전남이 '아동이 가장 살기 좋은 곳' 설문조사에서 최하위 지자체로 전락했다. 반면 광주는 대폭 순위가 올라 '아동이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상위권에 진입했다. 특별·광역시와 세종시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에 사는 어린이가 누리는 '삶의 질' 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전남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농어촌이나 소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 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0~11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부모 등 8171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주관적 행복감, 교육·주거 환경, 안전 등 총 8개 영역 43개 지표에 걸쳐 설문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 삶의 질 지수(CWBI, Child Well-Being Index)가 가장 높은 지역은 113.88을 기록한 세종시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110.91), 대전(110.76), 인천(109.60), 광주(109.13), 서울(107.11), 울산(104.86), 대구(102.96) 등 특별·광역시와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2위였던 세종은 건강과 교육, 물질적 상황 등 3개 영역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에 올라섰다. 반면 전북 13위(94.27), 강원 14위(91.26), 충북 15위(90.42), 충남 16위(88.2), 전남 17위(77.78) 등 대부분 도 지역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일부 인접 시도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하더라도 속한 곳에 따라 아동이 누리는 삶의 질이 갈린 것이다. 올해 광주의 CWBI는 지난해(96.80)보다 12.7% 오른 109.13이었으나, 같은 시기 전남

(89.60→77.78)은 15.2% 감소했다. 순위 역시 광주는 10위에서 5위로 오르며 상위권에 진입했고, 전남은 15위에서 최하위인 17위까지 떨어졌다. 연구진은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예산 비중 등이 아동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하위 지역 재정 자립도가 20~30%대에 그쳤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도 35% 이하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9일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농어촌이나 소도시가 늘면서 지역 간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며 "모든 아동이 균등하게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연합뉴스

## 광주 국악상설공연 광주다운 멋 알린다 '송년 스페셜' 등 행사 다채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 '광주국악상설공연'이 12월 한 달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정통 국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광주의 매력을 듬뿍 담은 프로그램까지 풍성하게 구성됐다. 광주시립예술단(창극단, 국악관현악단)과 지역 민간예술단체 10개 팀이 출연해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첫 공연은 올라팀이 '상사디어'를 주제로 'Frontier', '열두달이 다 좋아!', '마당쇠 글 가르치는 대목' 등 퓨전 국악관현악 무대를 선보인다. 송년 특별공연도 운영된다. 23일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송년특별공연으로 소리꾼 고영열이 특별출연하는 '송년음악회'를 마련했으며, 관현악 '남도아리랑', 중주 '가면무도회' 등 국악관현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캐롤송 무대도 열린다. 25~26일에는 올해 광주국악상설공연에 참여한 10개 민간예술단체가 '송년스페셜 I·II' 공연을 올린다. 25일에는 풍물세상 굿패마루, 향산주소연 판소리 리보존회, 루트머지, 올라,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컬단 광주호남지부 등이 '홍부네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친 관람객들에게 흥겨운 크리스마스 공연을 선사한다. 26일에는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 판소리예술단 소리화, 타악그룹 얼쑤, 창작국악단 도드리, 예락팀이 참여해 '송년 국악한마당 잔치' 합동 공연을 진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12월 말까지 건축물 사진 전시 등

광주시는 "제1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30일부터 12월31일까지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홈페이지(<http://gfauc.gjifika.org>)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 학생과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드는 건축·도시문화 축제의 장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전시로 진행된다. 광주지역 우수 건축물(건축물/공간) 사진전인 '건축·도시 사진공모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작품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작품이 전시된다. 또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장려하기 위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품전', 건축문화 장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광주건축상 역대 수상작',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 '2020년 4개 시도 건축문화상 교류전' 등도 만나 볼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AI 방역 초소 방문 김영록(가운데) 전남지사가 지난 28일 오후 영암군 신북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통제 초소를 방문.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으로부터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나주 음성권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전남도가 29일 나주시 금성관, 나주향교, 나주 음성 서성문 등이 밀집된 과원동 일원을 '나주 음성권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 지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경관적인 특색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에 지정될 진흥구역은 나주 음성일대인 과원동, 서내동, 산정동, 금계동 등으로 면적은 9만 8459㎡다. 전남도는 진흥구역 지정에 위해 지난 10월 전라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30일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72억원을 투자해 전통한옥 235동(주택 162동, 상가 73동)을 신축하고, 담장과 건축물 외벽 경관을 개선해 역사·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2016년 나주시에 전통한옥 견본주택 및 중층 한옥 상가 건축비 5억원과 담장 등 경관개선 사업비 1억원을 한옥마을 조성사업비로 지원했으며, 지난해 공공기반시설비 1억5000만원도 지원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시, 시정 역점사업 실행력 강화 중심 조직개편

청년정책과·주택정책과 신설  
광주형 AI그린뉴딜 총괄 기능 강화  
광주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시정 역점사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광주시는 29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관련 조례·규칙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역의 미래자원인 청년세대

에 관한 종합적 정책지원과 서민 주거안정 등의 기능강화를 위해 '청년정책관'과 '주택정책과'를 신설하고, 광주형 AI-그린뉴딜의 역점추진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확충 등이 핵심이다. '청년정책관'은 청년세대와의 소통 강화로 청년의 의견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시는 현행 여성가족국 청년청소년과는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교육청소년과로 재편한다. 시는 또 도시재생국 내 '주택정책과'를 신설하고, 현행 '건축주택과'는 건축과 공공디자인 기능

을 통합해 '도시경관과'로 재편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실현을 위한 조직도 확충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를 각각 '기후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로 기능을 재편한다. 이 밖에도 광주형 3대 뉴딜(그린, 디지털, 휴먼) 총괄기능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내에 '뉴딜정책팀'을 신설하고, 에너지산업과 내에 에너지 생산·공급 방식을 친환경 인프라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너지산업팀'을 새로

만든다.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과 내에 '자전거팀' 등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존 '스마트시티과'를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재편하고, 기존 인공지능산업육성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한다. 기획조정실 소속 '세정담당관'은 내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자치행정국으로 옮긴다. 광주시 조직은 기존 4실 8국 2본부 68과에서 4실 8국 2본부 71과로 3개과가 증설되며, 총 정원은 소방직 39명을 포함한 88명이 증원돼 4086명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294회 정례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 관련조례에 대한 심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청정해남 농수산물 종합쇼핑몰

# 해남미소

혜택 하나

신규회원 가입시  
**3,000원 지급**

혜택 둘

구매후기 이벤트 추천  
**농수산물 및 기념품 증정**

혜택 셋

기획상품 할인행사  
**최고 50%까지 할인**

문의 080-859-1100 | [www.hnmiso.com](http://www.hnmiso.com)